

소공동체 소식

이 페이지는 각 구역이나 심심단체가 새로운 정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직접 꾸미는 '주보 사랑방'입니다

올드브릿지 구역

올드브릿지 구역 이야기

올드브릿지 구역은 물리적으로 본당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성당에 가까이 머무는 믿음이 깊은 9가구로 이루어진 작은 구역입니다. 대부분의 구역원이 공동체의 심심단체나 봉사단체에 하나 또는 둘이상 속하고 있어,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봉사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교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윤부제님 부부께서 보금자리를 저희 구역으로 옮기셔서, 구역의 중심점이 되어 주시어 더욱 영성적으로 풍부한 구역입니다. 저희는 대부분의 시간을 세속의 삶속에서 보내는 인간이기에, 공동체내에서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삶의 현장 즉 가정, 일터에서 보여주고 있는지 엿어보려고 합니다

박 화성 헬레나

세자녀를 미국에서 키우기 위해 저는 세상의 많은 풍족함을 뒤로하고, 인생의 올바른 길은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굳게 믿기에, 유아세례를 시작으로 가톨릭 교리와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 고등학교까지 가톨릭 학교를 보내, 주님의 사랑을 뿌리깊게 마음에 새기도록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성당에선 복사와 봉사활동을 하고, 학교에서는 교우들과 사랑을 나누며 도움주는 일에 마음쓰도록 기도드렸더니, 그들이 장성하여 자녀들을 둔 지금 주일미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유아세례는 물론, 네 손자, 손녀 모두 고등학교까지 가톨릭 학교를 보내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행복의 원천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임을 대물림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딸과 3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저는, 주님의 사랑을 가족 모두 실천하는 깊은 신앙의 모습을 보며, 제가 선택한 삶의 구원의 길이 즉 성가정이 주님사랑의 기본임을 보여줌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가정에 주님과 성모님께 기도하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 놓고, 그 앞에 앉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일상 중 가장 행복하며, 온가족이 주님을 찬미하고 기뻐하는 모습은 제가 바라던 바로 주님이 함께하시는 낙원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당에서의 심심단체와 봉사활동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은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음에 주님이 주신 은총이라 여깁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전 옥주 글라라

미국생활 몇년 후 이룬 저의 조그만 사업체는 제게 부를 가져다줄 원천으로 여기며 기쁨에 넘칠때, 갑자기 찾아온 병마로 인하여 예비신자 신분으로 한국의 성모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제게, 주님께서는 봉사자들을 보내시어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생면부지의 저를 위하여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리는 경건한 모습의 봉사자들은 흡사 천사들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 주님 감사합니다. 수술후 미국에 돌아가면, 당신의 사랑을 전하는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약속 드렸습니다.

미국에 돌아와 세례를 받은 후 레지오 단원과 성모회장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신앙을 키워가고 있을때, 이 좋은 구원의 삶을 저혼자 영위할 수 없을 것 같아, 먼저 제 3자녀들에게 전교하여 그들과 함께 주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후 주님께서는 주님을 전할 타전인 앙로원, 성인 데이케어에서 전도할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고 외로우신, 연로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며 그분들에게 필요한 영혼의 평화를 위하여 성경공부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 예비자 교리로 인도하며, 레지오 권면으로 어르신들의 삶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며, 주님의 사랑의 큰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보살핌이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이미 주님의 사랑을 품은 제눈에는 제 부모님으로 생각되어, 마음과 손길이 주님의 손길로 점점 다가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제 안에 당신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화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서 경호 안드레아

쿵!... 비바람에 쓰러지는 썩은 고목나무 처럼 내 육신은 힘없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벌렁 누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인산인해를 이룬 성령 세미나에 참가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치유의 은사를 받고저 함께하고 있었다. 멍하니 차가운 바닥에 누워 선택 받은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현대 과학이나 의학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게 아닌가?..... 아!...정녕 이게 주님의 은총이었구나 생각하니 지난날의 주님에 대한 무관심 한없이 부끄러워진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과 육을 치유해주셔서..... 나는 야훼 너희를 치유하는 의사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올드브릿지 구역에는 누가 있나요?

아래 왼쪽부터 - 윤규옥(안젤라), 김인영(수잔), 콰엘리사벳, 윤석로(이나시오) 부제님, 정길예(프란체스카), 전옥주(글라라), 박화성(헬레나)
위 왼쪽부터 - 서경호(안드레아), 전광수(프란치스코). 그 밖에 - 심윤조(이피제니아), 손영렬(스테파노), 김광태(루카), 정영철(프란치스코), 조순재(마리아 막달레나).



정 길예 프란체스카

주님! 당신께선 저희를 한번의 창조로 끝내심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변화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모습으로,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프란치스코에겐 구원의 길이 아닌 고통의 길로 재창조하심을 보고, 저의 겹세마니에서 오랫동안, 당신의 창조는 실패하셨으며 졸작이라고 원망하고 실망하며, 그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고통으로 와 닿으니 헤어날길 없는 방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당신의 말씀이 뇌리를 스쳐갔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구원은 오직 주님 사랑만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제 믿음은 이웃 사랑을 간과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당신이 실패작을 세상에 내놓으실리 없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비롭고 크신 사랑에 인간의 작은 사랑이 함께 할때, 비로소 창조는 완성되고 구원은 실현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제게 베풀어 주신 육신의 건강은 아픈 프란치스코의 불편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주신 것을, 저를 위한 시간을 허락하심으로 착각했습니다. 그 당신의 자비와 제 사랑이 함께 할때 비로소 프란치스코의 재창조는 당신의 뜻대로 완벽해짐을 깨닫고, 저의 겹세마니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당신의 자비에 저와 프란치스코를 맡기오니, 제 힘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제 안에 당신의 사랑을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시어, 그를 향한 제 사랑이 메마르지않게 해주시길 두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구역소식

전옥주 글라라 자매님과 전광수 프란치스코 형제님의 큰 따님인 전 선님 아네스 자매님이 지난 5월 21일 따님 예비를 출산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제17주일

2022년 7월 24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00AM~3:00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용 스테파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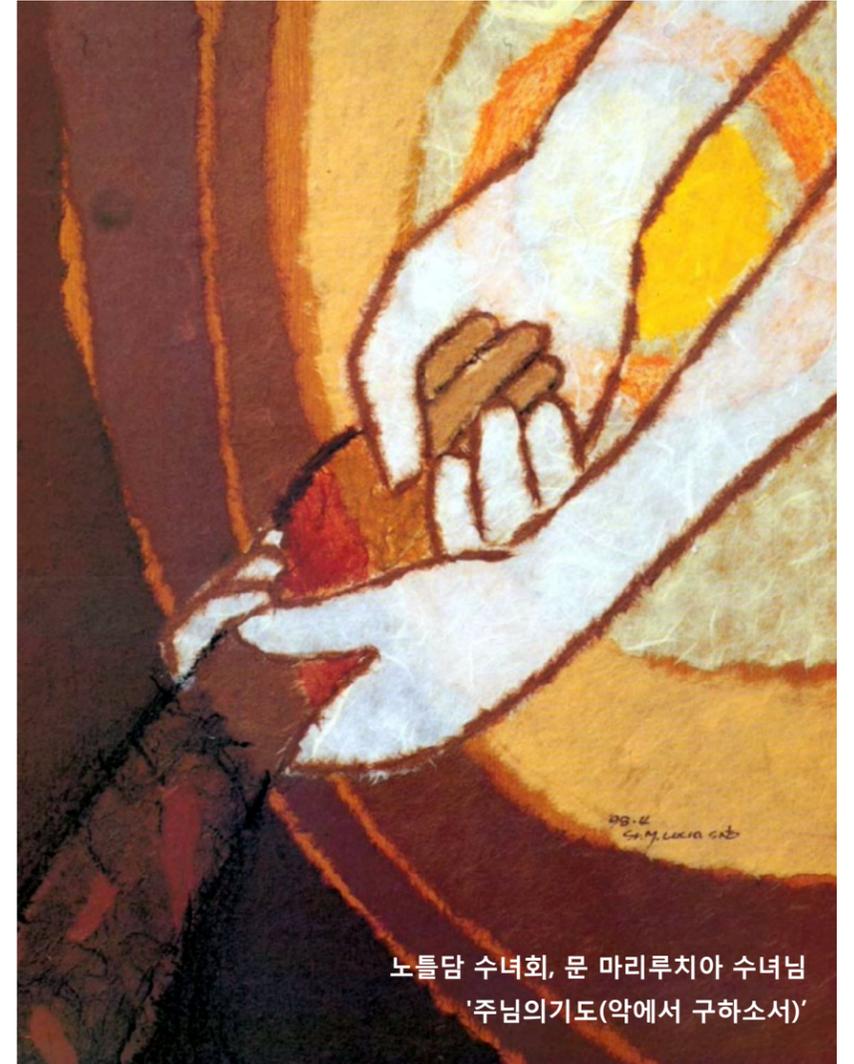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창세기 18,20-32
- # 화답송 시편 138(137),1과 2.2ㄱ과 3.6-7ㄱ.7ㄷ-8(◎ 3ㄱ 참조) ©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2,12-14
- # 복음 환호송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 # 복음 루카 11,1-13 <청하야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 # 성가번호 입당 21 봉헌 212 성체 156 파견 65

미사지향 (연미사)

- 최복자(레지나) - 가족
- 소형덕(베드로) - 가족
- 오옥순(수산나)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오홍순(카타리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박병희 - 김 스텔라
- 이정만 - 가족
- 김우순 - 가족
- 유익준 - 유미선(클라라)

미사지향 (생미사)

- 유병기(베네딕도) - 박재영(요아킴)
- 김삼식(베드로) - 서경호(대건안드레아)
- 염은미(클라라) - 가족, 심윤조(이피제니아)
- 유현철 Peter - 가족
- 김호근(다미아노) - 김영필(안토니오) 가족
- 강해성(야고보) - 가족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미사 참여 128명).....\$1,133
- 2차헌금 (유틸리티).....\$632
- 교무금.....\$1,550

정영철(7-8)	장수지(9-10)	육순재(7-12)
김삼식(7)	서경호(7-8)	염기선(6)
허종(7)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염은미(클라라)	

2022 Bishop's Annual Appeal

• 7/1까지 약정금액은 \$43,502 (목표금액의 124.3%, 135 가정 참여)입니다.

• 6월 22일 기준으로 2022년 Bishop's Annual Appeal \$35,000목표금액의 122.93% 를 달성하여 교구청으로부터 \$3,173.25을 리베이트 받았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차 헌금

- 8월 14일: 유틸리티

미사 시작 10분전부터 삼중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예비자 교리반 모집

• 2022년 7월부터 예비자 교리 교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한미 통합사목회의

• 일시 및 장소: 7월 27일(수) 오후 7시, 성당 친교실

반석회 7월 모임

• 일시: 7월 30일(토) 오후 12시 30분
• 장소: 성당 친교실

기획분과 회의

• 일시 및 장소: 8월 7일(주일) 미사 후 성당 친교실

노스브런스윅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8월 7일(주일) 미사 후 성당 친교실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8월 14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꼬미시움 주관 레지오 단원 일일 교육

• 일시 및 장소: 7월 31일(주일) 오후 2시-6시, 성당
• 강사: 미 동북부 레지오 교육 위원회 회장단
• 대상: 행동단원과 협조단원, 레지오를 통한 신앙생활과 성모 신심에 관심 있으신 교우분들

뉴욕/뉴저지 제6차 선택 주말 - NY/NJ Choice Weekend

• 일시: 2022년 9월 3일(토) 오전10시- 9월5일(월) 오후3시
• 참가대상: 1984-2000년생 청년 미혼 남녀(한국어권, 영어권)
• 장소: 뉴튼 수도원 St. Paul's Abbey Rt 206, Newton, NJ 07860
• 참가신청: www.choicenynj.com (7/15 - 7/31, 선착순30명)
• 참가문의: choicenynj@gmail.com
• 참가비: \$270(\$50 non-refundable deposit)

선교지 청소년들에게 악기보내기 운동 2022 콘서트

• 미국 살레시오회 주관으로 선교지에 악기를 직접 보내거나 악기 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생활하는 선교지 청소년들에게 사랑의 빛을 밝혀주는 숭고한 애덕을 실천하고 주님의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2년 8월 13일 오후 6시
• 장소: 마리안 슈라인 이태석 신부 Hall 174 Filors Lane, Story Point, NY 10980
• 문의: 이상익 요한(201-341-4949) 구본주 미카엘(917-248-5977)

은혼식, 금혼식 축하 예식

• 메타천 교구 체키오 주교님의 주례로 결혼 25주년, 50주년을 기념하는 혼인갱신식이 있습니다.
• 일시: 2022년 10월 30일(주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St. Francis of Assisi 메타천 주교좌 성당

제 1독서 창세기18,20-32

그 무렵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 모두가 저지른 짓이 나에게 들려온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아야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몸을 돌려 소돔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서 말씀드렸다.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혹시 그 성읍 안에 의인이 천 명 있다면, 그래도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안에 있는 의인 천 명 때문이라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시어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는 공정을 실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 성읍 안에서 내가 의인 천 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 그곳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드렸다. “저는 비록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아립니다. 혹시 의인 천 명에서 다섯이 모자란다면, 그 다섯 명 때문에 온 성읍을 파멸시키시렵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마흔다섯 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파멸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분께 아뢰었다. “혹시 그곳에서 마흔 명을 찾을 수 있다면 …… ?”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마흔 명을 보아서 내가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아뢰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서른 명을 찾을 수 있다면 …… ?”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서른 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주님께 감히 아립니다. 혹시 그곳에서 스무 명을 찾을 수 있다면 …… ?”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스무 명을 보아서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다시 한번 아뢰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열 명을 찾을 수 있다면 …… ?”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열 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2,12-14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세례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잘못을 저지르고 육의 할례를 받지 않아 죽었지만,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은 우리의 빛 문서를 지워 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루카 복음 11,1-13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모든 이를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세 개만 꾸어 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졸곤 졸라 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졸곤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루카 11,8

